

I. 2017년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

1-1. 2017년 재정전망

□ 세 입

-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석유업계 영업실적 호전 및 원유 가격하락에 따른 석유화학업계의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로 지방세 세입이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, 세입수입도 사용료수입, 수수료수입 및 재산 매각수입 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지방교부세는 대·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등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보조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지역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사업비는 감소 예상

□ 세 출

-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과 기존 도로·교량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, 농축·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, 자연환경 조성,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등 「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 여수」 건설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재원을 투자해 나가야 할 실정으로 재정지출 수요 증가가 예상
- 인건비, 공공요금 등 법적·의무적경비, 경상적 경비 및 각종 시설물 신축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
-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기초연금 등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, 노인·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·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, 영·유아 보육,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 관련 지출수요가 확대되고, 특히 노인 및 영유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더욱 증가될 전망
- 평생교육 및 친환경 학교급식 등 미래를 이끌고 갈 인재육성에 대한 지출과 문화, 예술, 체육관련 수요도 증대되고 있음

1-2. 재정운용 방향

- 일자리 창출사업, 해양 관광 개발사업,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농어업 신성장 동력화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등 역점 추진시책 및 마무리 사업 위주 편성
-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 견지
- 도시계획도로, 농어촌도로 등 계속 추진 중인 사업, 연례 반복적인 도로·교통·공원·상하수도 유지관리 등 시민과 밀접한 예산 반영
-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비 투자 등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
- 예산편성·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,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

①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

-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 상설화
-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
-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

②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

-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촉진
-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·유통 선진화
-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

③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

-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
- 복지대상자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
-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

④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

-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
-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된 도시 디자인 추진
- 이층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·마을 조성

⑤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

-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
-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
-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